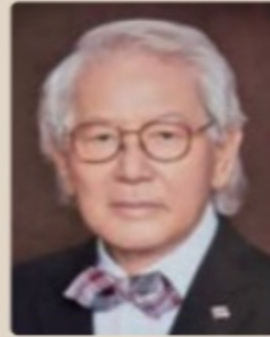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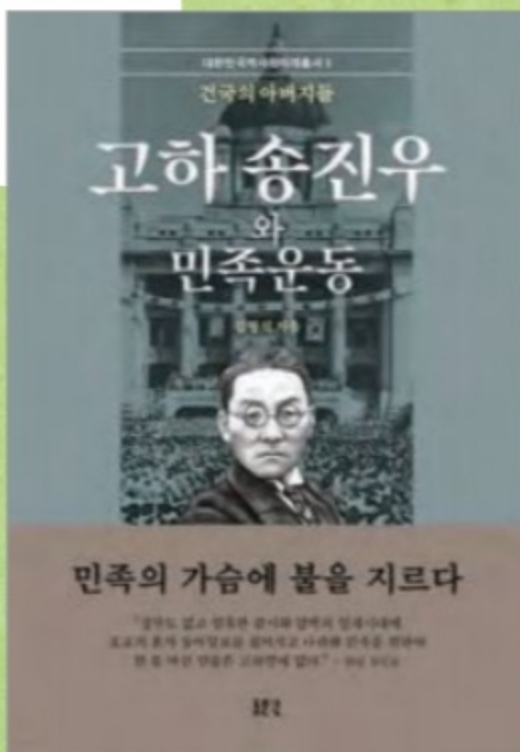


김형석 박사의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고문
11·12·15대 의원
본지 편집위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인 김형석(金亨錫) 박사는 그의 역사 인물 연구의 일환으로 1988년에는 남강 이승훈(南岡 李承薰)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를 연구, 단행본을 발간했다. 뒤이어 해방 후 독립운동지도자들 간의 노선 차이에서 비롯된 건국과정의 제반갈등을 “끝나야 할 역사전쟁”으로 묶어 단행본을 내놓으면서 미국 독립운동 과정을 화합적으로 마무리한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개념을 우리도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김 박사는 국내에서만 60평생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해방 직후에도 건국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던 중 해방된 지 127일 만에 테러로 목숨을 잃은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 1890~1945) 선생을 소환,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했다.

고하는 우리나라 식자들 간에는 널리 알려진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의 한 분이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행사는 표면상으로는 민족대표 33인이 주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뒷면에서 전 민족적 궤기를 작동시킨 15인의 실질적인 운동가들이 있었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좌파인사들 주도로 우리 현대사가 왜곡되면서 독립운동 지도자를 보는 시각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들 좌파에 속한 사가(史家)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철권 통치와 감시 속에서 힘들게 독립운동을 벌여왔던 인사들에게 때 아닌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독립운동의 유형 문제

저자는 이러한 오류를 묵인,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국내 독립운동지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하 선생의 경우를 가장 성공한 국내형 독립운동지도자로 재조명, 부각시키고 있다. 이하 김 박사의 고하 연구 중 평자(評者)가 중시한 부문만을 간추려 소개하면서 평자(評者) 나름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간 우리 학계는 독립운동을 대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

표로 하는 외교 독립운동이다. 이는 일본의 강박에 의한 조선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계 여론에 호소, 일본의 조선 지배를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독립의 길을 트자는 노선이다. 둘째는 무장투쟁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국 강토를 무력투쟁으로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상룡, 이회영, 김좌진 등이 주도했다. 셋째는 의혈 투쟁이다.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의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실효적인 것은 어떤 투쟁이었는가. 송복(宋復) 교수는 독립운동의 방법으로서 외교투쟁과 독립의 터전을 가꾸는 교육문화 운동이 가장 실효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이나 만주 연해주 등지를 무대로 전개되었던 무장투쟁이 일본의 만주침략과 중일 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참담하게 소멸되어 갔고 의혈 투쟁도 국민의 독립정신을 일깨우는데 기여한 공로는 다대했지만 독립의 실효를 얻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로 선언을 가져온 외교투쟁과 국내에서 독립국가 건설의 정신적 토대를 지키고 길러온 교육문화 운동이야말로 실로 값진 독립에의 기여로 보았다.(계간 「철학과 현실」 2023년 송년호 '나의 살아온 길' 중에서 참조) 송 교수의 견해는 아직 국내 학계의 통설은 아니다.

평자가 이를 중시한 까닭은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강요한 한글 폐지, 창씨개명을 받아들여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화의 길로 갔다면 과연 우리의 독립이 가능했겠는가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식민지 독립운동의 정치 명분이 민족주의일진대 민족주의의 존립 명분은 혈연, 역사, 언어, 문화의 공통성 유지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이 역사적 운명공동체 의식, 언어의 동일성, 문화의 공통성을 지키는 것이라면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서 민족의 얼을 지키는 교육문화 운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간고한 투쟁에 나섰던 국내 독립운동보다는 해외독립 운동을 더 높게 보았다. 훨씬 우대하는 분위기였다. 또 교육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지도자들보다는 무력투쟁이나 의혈 투쟁을 펼친 인사들을 크게 떠받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런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그가 국내자료를 집대성해서 집필한 고하 송진우 선생은 식민지 치하에서도 온 국민이 민족의 정

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였음을 모든 사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고하는 우선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과 함께 언론기관으로 동아일보를, 교육기관으로 중앙학교를 설립했다.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으로 민립대학 창설 운동에도 동참했다. 인촌 선생이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쌓는 교육문화 운동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고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 나갈 소프트웨어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큰 족적

고하는 한국사에서 그가 존경하는 인물로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세 분을 들면서 동아일보 지면을 이용, 이분들의 정신과 업적을 국민의식으로 내면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육당 최남선을 통해 단군신화를 살리는 불함문화(不咸文化)론을 체계화시켰고 춘원 이광수로 하여금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소설로 동아일보에 장기 연재시켰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 찍힌 일장기를 신문 사진에서 말소시켜 당대에 큰 풍파를 일으켰고 동아일보는 정간당했다. 또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남 아산의 현충사를 복원하고 충무공 정신을 선양하는 추모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또 고하 선생의 공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919년 3.1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제작, 감독

한 설계사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국권을 박탈당한 전 세계약소민족들에게 독립에의 꿈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윌슨의 주장은 결과로 보면 유럽대륙의 백인 약소민족의 독립을 염두에 둔 제한된 메시지였다. 그러나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파급은 전 세계적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도 국내외에서 독립의 호기로 보았다. 2.8 동경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이나 4월 14~16일까지 2박3일간 지속된 이승만 중심의 필라델피아의 독립 시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고하는 한반도 전체 민중들이 모두 나서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전체 한민족 궐기의 독립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였다. 1919년 3월 1일 행사는 표면상으로는 민족대표 33인이 주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뒷면에서 전 민족적 궐기를 작동시킨 15인의 실질적인 운동가들이 있었다.

고하는 33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어 옥중에서 갖은 악랄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다이쇼(大正) 천황이 데모크라시를 실시한다면서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만을 적용하고 언론인 등 이면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단순 동조자로 분류, 처벌하지 않기로 판정함에 따라 투옥된 지 12개월 만에 무죄로 출감했다. 이때 함께 풀려나

온 인사들 가운데는 함태영(咸台永) 제3대 부통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는 이들 15인까지를 합한 48인으로 보는 것이 정답이다. 고하는 일제 치하에서 실로 네 차례 경찰에 체포되고 세 차례 구속당한 후 모진 고문을 받고 도합 27개월 옥중에서 고생한 국내 독립운동의 가장 실천적 지도자였다.

국내 일부 좌경 사학자들은 정부 수립 사반세기가 훨씬 지난 1980년 후반에 갑자기 자기들이 무슨 권리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을 지목, 친일파로 매도했다.

일본을 따르면서 일본에 아첨하던 친일파 군상은 8.15해방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친일파 논쟁을 제기했다. 이것은 6.25 남침 실패로 설 자리를 잃은 좌파들이 자기들이 민족진영 인사인 것처럼 재기할 명분을 삼기 위해 고의로 친일파 재조(再造)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좌경정권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 해방 40년이 지난 후 '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갑자기 제정, 이 법으로 인촌 김성수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을 친일파로 몰아 서훈까지 박탈했다. 언어도단이였다.

김형석의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은 비록 단행본이지만 국내에서 전개된 반일 독립운동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울곧게 웅변하고 있다. 지면 관계로 많은 설명이 누락되었지만 현대사를 바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홍익**